

退·栗의 인간교육론**

李 海 明*

• 目 次 •

I. 서 론	1. 교육 목적론
II. 退·栗의 인간관	2. 교육 방법론
III. 退·栗의 인간교육론	IV. 결 론

I. 서 론

우리는 흔히 인간교육을 주장한다. 사회가 점점 기계화 되어가고, 물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사회의 도덕성이 이완되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나 인간교육의 구호가 등장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서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인간교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도덕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 새로운 교과 하나를 덧붙여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의 교육개혁이 그런 덧붙이기 식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교육의 틀을 그대로 두고 도덕 교과를 하나 더 덧붙여 가르친다고 해서

* 단국대 교육학과 교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14-1호(1991) 게재논문

인간교육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육개혁을 살펴보면 대체로 ‘뺨질식’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그대로 둔 채 그때 그때 필요한 과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왔다. 어떤 과목을 늘리고 줄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대부분 교육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사회적 판단, 또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사회의 혼란기에 구호로 시작했다가 사회가 안정되면 없어지고 마는 구호만의 개혁을 되풀이 해왔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구호는 난무했지만 학교교육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이제까지 우리가 원용해 왔던 심리학적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 심리학적 패러다임은 교육학을 기계로 한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간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을 설계하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고 아무리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바꾸어 보았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 내용을 아무리 고쳐 보아도, 또는 아무리 새로운 학습기재를 사용해 보아도, 교과서 개편의 기준이 되고 학습기재 사용의 기준이 되는 교육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심리학적 패러다임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Edward Thorndike나 John Dewey는 모든 교육의 문제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Thorndike는 교사가 자신의 직감이나 우연 또는 개인적 수단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교육학이 가장 완벽한 과학, 즉 심리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Dewey도 교육학이 과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점에서는 Thorndike와 궤를 같이 한다. 그는 교육학이 ‘means-ends’식의 기계적 능률성을 닮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Thorndike는 심리학적 정확성을, 그리고 Dewey는 기계적 능률성을 신봉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그들의 이념은 그대로 과학이라는 이름 밑에서 교육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된다. 1920년대에는 Franklin Bobbitt와 W.W. Charters에 의해서 교육과정의 설계가 행위의 분석을(Activity Analysis)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교육의 설계는 사회에서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다시 그 목표를 행위 분석법을 통하여 구체화 시킨다는 것이다. 소위 기계의 능률성이 교육학에 투입된 것이다.

Bobbitt나 Charters의 기계적 능률성은 Ralph Tyler에 의하여 하나의 완벽한 교육적 패러다임으로 정착된다. 즉 교육의 설계는 1) 교육목적의 달성, 2) 교육내용의 선정, 3) 교육내용의 조직, 4) 평가방법의 네 단계를 거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학을 ‘means-ends’식의 기계적 능률성에 묶어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소위 과학적 능률성은 심리학의 발달에 의하여 보다 구체화 된다. Robert Gagné, Robert Glaser, Robert Mager, 그리고 James Popam 등의 교육 심리학자들은 교육목표를 구체화하여 교육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리학적 측정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결국 교육학에서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산출된 수치가 아닌 것은 버림받게 되는 교육적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리학의 패러다임은 교육학의 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심리학은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심리학적 패러다임에 젖어서 교육을 학습과 동일시 해왔다. 그러나 학습은 교육의 일부이거나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교육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리학이 필요할 뿐이지 심리학이 교육학을 대신할 수는 없다. 즉 우리의 관심은 교육에 있는 것이지 학습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심리학적 패러다임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패러다임을 갖추어야 하는가? 심리학적 패러다임이 교육을 한낱 기술로 격하시켰기 때문에 교육이 훈련의 과정으로 변해버렸다면, 교육이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한가? 교육이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능률적으로 달성하느냐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기계적인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사물을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처리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 패러다임이 요구되는가?

우리는 기계적 또는 심리학적 패러다임 대신에 성리학의 패러다임을 대입시켜보려 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리학의 교육적 패러다임은 군자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군자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성리학에서는 인간교육을 교육학의 패러다임으로 사용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교육의 완성을 위하여 성리학에서의 교육적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보려고 한다. 인간교육의 설계를 위하여 성리학의 교육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보려고 한다. 인간교육의 설계를 위하여 성리학의 교육 패러다임을 원용할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특히 퇴계와 율곡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교육의 패러다임을 추구하여 보려고 한다. 퇴계나 율곡은 조선조 성리학의 대표적인 학자임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거니와, 그들의 사상은 대체로 별 수정 없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승되어왔기 때문이다. 퇴·율의 사상이 후세의 학자들에 의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성리학적 기본 개념은 별반 수정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퇴·율의 성리학적 인간교육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보려는 것이다.

II. 退·栗의 인간관

退·栗의 인간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天人合一의 사상이다. 인간의 심성 속에는 천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진심을 다하면

천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천명의 수행이란 곧 聖人으로 완성됨을 말한다. 즉 인간은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퇴·율이 생각하는 교육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군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퇴계의 경우에 있어서 그의 사상을 집대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聖學十圖>다. 그런데 퇴계의 <聖學十圖>를 분석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天의 原理’이며, 다른 하나는 ‘人間存在의 原理’이다. <第一太極圖>와 <第二西銘圖>는 ‘천의 원리’로서 세계와 존재의 기본법칙을 밝히고 「小學」, 「大學」의 근본 준거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第三圖>에서 <第五圖>까지는 「小學」과 「大學」의 내용을 중심으로 ‘천의 원리’를 구체화시키는 ‘인간존재’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인간존재의 원리’는 ‘心·性·情’의 문제로 구체화되어 <第六圖>에서 <第十圖>까지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퇴계사상의 근본은 천과 인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천과 인은 서로 합일된 상태라는 것이다. 천의 원리는 그대로 인간존재 원리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퇴계는 천인합일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 퇴계는 태극도를 원으로 그리고 있다. 즉 천지인의 모든 삼라만상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절의 관계가 아닌 순환의 관계라는 것이다. 陰과 陽, 理와 氣, 性과 情 등의 모든 관계는 서로 상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율곡도 인간존재를 천인합일의 사상에 기초해서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율곡은 “천지와 사람과 만물이 비록 각각 그 理가 있으나 천지의 理가 곧 만물의 理요, 만물의 理가 곧 사람의 理니, 이것이 곧 統體一太極인 것이다”¹⁾라고하여 천지인의 통합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율곡은 천·지·인을 통괄하는 원리를 태극이라고 하고, 그것은 하늘

1) 栗谷, “성호원에게 답하다”, 『栗谷全書 I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53

에서 내린 天命之性이요, 그것이 일상의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率性之道며, 그것이 止於至善에 이르러서 時中을 얻은 것이 修道之教라고 보고 있다.²⁾ 다시 말하면 천명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천명은 인성 속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천인합일의 논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율곡도 천지인의 관계가 상관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율곡은 우주 생성의 근본 원리인 태극과 음양의 관계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율곡은 “음양의 兩端은 끊임없이 순환하여 본래 그 시초라는 것이 없다. 음이 다하면 양이 생기고, 양이 다하면 음이 생기어 한 번은 음이 되었다가 한 번은 양이 되었다가 하지만, 태극이 거기 있지 않은 때가 없다. 이것이 태극이 萬花의 樞紐요 만물의 근거가 되는 소이이다”³⁾라고 하여, 음양과 태극이 모두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퇴·율의 기본적인 인간관은 천일합일사상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일합일의 상태는 분리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 순환과 연관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운명적이거나 조건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퇴·율이 인간의 존재를 자율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두 번째 특징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퇴계는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임을 心·性·情의 관계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퇴계는 그의 심성관의 출발을 천인합일에서 시작하고 있다. 즉 사람의 五性·四端·七情 등은 천의 四德·五行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심성이 천명을 받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西銘에서는 인간의 心이 혼연히

2) 栗谷, 위의 글, pp.30~34.

3) 栗谷, “박화숙에게 답하다”, 『栗谷全書』, p.21.

우주에 가득 찼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심성이 천명과 일치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심성이 천명과 합일할 때는 사단의 情이 발현되어 인간의 행동이 純善하게 되지만, 인간의 심성이 천명과 합일하지 않게 될 때는 인욕에 좌우되어 불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 천명과 합일되고, 어떤 경우에 천명과 합일되지 않는가? 퇴계는 인간의 마음을 理와 氣가 합쳐진 것으로 본다. 그는 제자인 申啓叔에게 다음과 같이 心을 설명한다.

대체로 理와 氣가 합하여 心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으니, 그림에서 氣의 테두리 부분은 氣이며, 가운데의 공백은 理입니다. 다만 이것을 합쳐서 마음(心) 테두리하고 명명하며, 理가 氣의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氣를 理와 함께 섞이지 않게하여 가운데를 비워 두었으니
.....4)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천명을 받아서 본래는 순선하지만, 그것이 마음 속에 있는 氣와 합쳐진 경우는 악으로 흐를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마음은 理와 氣가 함께 있는데, 이 마음이 동하면 情이 되고 정하면 性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性과 情도 다시 理와 氣로 나누어진다. 마음이 靜하여 性이 되고, 그것이 다시 理와 합쳐진 경우는 천명이 준 본연지성으로서 仁·義·禮·智·信을 의미하게 되며, 그것은 어떠한 악도 없는 無不善의 경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性이 氣와 합쳐지면 氣質之性이 되어서 上智·中人·下愚 등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동하면 情이 되는데, 그 情이 理와 합쳐지면 惻隱·羞惡·辭讓·是非의 四端이 발하여 역시 無不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동하여 情이 되고, 그 情이 氣와 합쳐지면 喜·怒·哀·樂·愛·惡·欲 등의 칠정을 나타나게 되어 有善有惡이 된다는 것이다.⁵⁾

4) 李滉, “申啓叔에게 답함”, 『계례의 큰 스승 退溪先生의 편지』(대구, 퇴계학회 경북지부, 1989), p.395.

心の 근원은 천명인데, 그것은 理와 氣의 작용에 따라서 사단과 칠정으로 갈리고 또한 선악으로 분리된다는 것이 퇴계의 심성관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마음의 움직임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퇴계의 표현을 빌리면 心이 먼저 동하는가? 아니면 性이 먼저 동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퇴계는 심성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심성은 혼연히 하나의 物이다. 동하는 것은 心이며, 동하게 하는 것은 性이라 하였으니 선후를 가를 수 없다.”⁶⁾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心과 性의 관계를 體와 用으로 봄으로써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퇴계는 心과 性의 관계를 所以然과 所能然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心의 動은 性의 所以然이요, 性의 動은 心의 所能然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작용은 객관적인 한 개의 작용으로만 볼 수도 없고, 또한 주관적인 性의 작용으로만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작용에는 理도 발하고 氣도 발한다는 것이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理는 氣의 主宰이고, 氣는 理의 재료다. 이 둘은 원래 불변되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혼합되어 나눌수가 없다…….”⁷⁾

따라서 여기서 퇴계가 시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發하기 이전은 理氣로 구분할 수 있지만, 發한 이후에는 理氣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행위나 마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마음의 理를 보전하고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敬을 강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학에서의 중요과제 중

5) 李滉, “사경에게 보냄, 별지” 「겨레의 큰 스승 退溪先生の 편지」(대구, 퇴계학회 경북지부, 1990), pp.195~97.

6) 李滉, “金而精에게 답함”, 「한국의 유학사상」(서울, 삼성출판사, 1990), pp. 140~45.

7) 李滉, “四端七情은 理氣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는 奇明彦의 변증을 첨부함”, 「退溪選集」, 윤사순 역(서울, 玄岩社, 1982), pp.222~24.

의 하나가 우리의 순선한 性을 늘 지니게 하는 존양을 중시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다. 존양이나 경은 곧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유학에서의 교육이란 곧 수양을 의미하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으리라.

율곡도 심성을 논함에 있어서 인간의 자율의지를 강조한 점에 있어서 퇴계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율곡은

인심과 도심이 서로 처음과 끝이 된다는 것은, 가령 사람의 마음이 性命의 바른 데서 나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에 순응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고, 여기에 私意가 섞이게 되면 이것은 처음에는 도심이었다가 끝에는 인심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에 形氣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이치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도심이 어긋나지 않는 것이요, 혹 바른 이치에 거스르지만 그른 줄을 알고 제재하여 그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처음에는 인심이었다가 끝에는 도심으로 미치는 것입니다.⁸⁾

라고 하여, 우리의 자율의지에 의하여 인심과 도심이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 計較商量인 意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인심과 도심또는 性과 情, 그리고 사단과 칠정등으로 이원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율의지인 意에 의하여 생각하고 헤아려 본 후에 결정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⁹⁾

결국 율곡이 생각하는 심성관도 앞에서 언급한 그의 천인합일사상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하늘의 명을 닮았다는 것이다. 그 하늘의 명은 발하기 이전은 순선하지만 발하면 선과 악이 교차하게 되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8) 栗谷, “성호원에게 답하라”, 『栗谷全書 Ⅲ』, pp.44~46.

9) 栗谷, “성호원에게 답하라”. 『栗谷全書 Ⅲ』, p.46.

다. 그 자율적인 관계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計較商量的 능력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율곡은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마음의 작용을 主理的인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主氣的인 관점에서 보면서 그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의 실용적인 심성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퇴계와 율곡은 결국 天人合一의 기본적 가설 속에서 인간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天人合一의 기본 가설 속에는 다시 두 가지의 종속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기본적 성품이 천명과 일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심성은 미발의 상태에서는 천명을 닮아서 순선하지만 발한 이후에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의 가설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인간의 기본적 성품이 천성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천성과 일치할 수 있게 된다는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교육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유학의 기본적인 교육관은 인간을 성인을 닮은 군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의 기본적 성품인 본연지성이 천명을 닮아서 순선하지만 그것이 발하게 될 때는 氣의 영향을 받아서 有善惡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인간의 본연지성을 지키게 되는 것은 인간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인간의 판단은 計較商量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유학에서는 인간이 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고력 및 판단력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퇴·율의 생각하는 교육의 이상은 인간을 천성을 닮은 군자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데에 퇴·율의 특성이 있다. 즉 퇴·율은 천과 인과 교육을 동일시 하면서, 교육이 인간을 만든데 있다는 인간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란 천명을 따르는 데서 인간다워진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면 인간이 천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Ⅲ. 退·栗의 인간교육론

우리는 앞에서 현대 교육이 기술과 심리학의 패러다임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인간성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한 현대 교육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퇴·율의 인간관을 분석하여 보았다. 퇴·율의 인간관이 현대 교육학의 기술적 패러다임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퇴·율은 인간존재가 天과 合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인간이 천명과 합일상태에 도달하는 군자의 양성에 있다고 본다. 군자란 천명인 元·亨·利·貞을 몸에 지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그렇다면 인간을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군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다. 여기에 대하여 퇴·율은 知行並進의 논리를 전개한다. 즉 居敬·窮理·方行的 並進을 통해서만 인간 교육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퇴·율은 인간존재가 상관성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陰陽·理氣·心性情의 통합론을 내세운다. 따라서 바른 인식은 모든 사물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豁然貫通 또는 一以貫之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근본적으로 退·栗이 생각하는 교육적 패러다임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교육의 패러다임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천인합일의 가설위에서 인간이 모든 우주만상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게 함을 보아서 분명해 진다. 즉 인간은 우주만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천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천과 동일시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

게 인간이 부여받은 천명은 理一萬殊의 양태로 존재한다. 즉 천명이 形氣를 받게 되면 有善惡의 가능성이 있는 萬殊의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심과 도심의 갈등이 있게 되는데, 이 갈등을 극복하고 천인합일의 상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천인 합일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여기서 퇴·율은 역시 천인합일의 가설 위에서 통합성을 강조한다. 즉 첫째로는 지행병진을 강조함으로써 지식과 행위와 심성이 통합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豁然貫通의 논리에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적 지식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군자는 不器’라고 하여 지식의 도구적 기능주의를 경계한다. 군자의 학문은 도구적·기능적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大原을 通見하는 통합적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퇴·율의 인간교육의 논리는 천인합일의 통합교육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이 우선 천인합일의 통합에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知行并進을 통한 지식과 행위의 일치, 그리고 活潑貫通의 논리를 통한 기술과 인간의 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퇴·율의 인간교육의 논리는 천인합일의 정신위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교육목표의 설정,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1. 교육 목적론

퇴계는 천인합일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교육의 목적이 모든 인간을 성인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성인이란 그 덕성이 천지와 합치하며, 그 밝음이 일월과 합치하며, 그 질서가 네 계절과 합치하며, 그 길흉이 귀신과 합치한다.”¹⁰⁾라고 聖學十圖에서 기술하고 있다. 또 西銘에서는 성인이란 그 덕이 천지와 합치되는 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퇴계가 이상으로 하는 교육의 목적은 천도와 합치되는 인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0) 李滉, <聖學十圖>, 『退溪選集』, 윤사순 역(서울, 玄岩社, 1973), p.332~33.

그러므로 천도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이상인데, 그것은 곧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본연지성인 것이고, 이것이 理와 합쳐질 때 仁·義·禮·智의 사단으로 구체화되고, 다시 그것은 부자유친·군신유의·부부유별·장유유서·붕우유신 등의 오륜의 구체적 덕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천도는 곧 인도라는 천인합일의 이상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회의 규범이며, 윤리이고, 교육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차단계는 孝·悌·忠·信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행위를 기초로 하며, 이차단계는 治人の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며, 삼차단계는 盡性之命에까지 이르게 되는 군자의 양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¹¹⁾ 다시 말하면 천도의 元·亨·利·貞과 인도의 오륜은 서로 상응한다는 논리에서, 오륜의 실천을 통해서 천도에 합일 될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퇴계의 인간교육의 논리는 기술적인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을 천인합일에 둬으로써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기계적인 패러다임이 means-ends식의 발상으로 인간을 기계의 종속적인 위치로 격하시키는데 반하여, 퇴계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理에 의하여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재는 천성을 부여 받아서 순선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적 노력을 그 본연지성을 회복하는데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계적인 패러다임의 논리에서는 인간을 인간의 本然之性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氣質之性에 의한 요구(needs), 흥미(interests), 그리고 목적(purpose)의 통합으로 본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 본연의 理가 아닌 氣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의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존재는 本然之性에로의 통합으로 천인합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나 심리적인 요구 등으로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존재는 본연지성으로서의 인간으로 이해되어야지 심리학에서의

11) 李滉, “鄭子中에게 답함”, 自省錄, 『한국사상전집 (2)』(서울, 삼성출판사, 1981), pp.49~51.

필요나 흥미 또는 사회적 요구에 의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주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취급되어야지, 인간이 조정 가능한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²⁾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교육학을 기계적인 논리로 취급하게 됨으로써 심리학이나 경영학적 이론이 원용되게 되었다.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요구 또는 흥미 등이 교육학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고,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는 윤리나 도덕 등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기계적인 논리는 교육의 목적과 수단을 능률의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교육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소외시킨 가운데 사회적 필요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편적 사실의 주입,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계적인 학습등의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이다.

교육적 패러다임이 기계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율곡에 의해서도 우선적으로 강조되었다. 율곡은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편찬한 「擊蒙要訣」의 제1장에서 立志章을 두어, 교육의 목적은 군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배움에는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야 하나니, 반드시 성인으로서 스스로를 기약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기거나 중도에서 물러설 생각을 갖지 말 것이다. 대개 평범한 사람과 성인은 그 본성인 즉 똑같은 것이니, 비록 기질의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뒤섞임의 차이는 없을 수 없을지라도 진실로 참되게 알고 실천할 수 있어서 그 넓은 습관을 버리고 그 타고난 성질로 되돌아가면 조금도 보태지 않을지라도 온갖 착함이 갖추어 넉넉할 것이니, 평범한 사람이라도 어찌 성인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지 아니 할 것이냐? 그래서 맹자께서는 인성은 착한 것이라 말씀하시되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으시며 이로써 그것을 신증하여 말씀하였고, 사람은 다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고 하셨으

12) James Macdonald, "A Curriculum Rationale, The Contemporary Thought on Public School, Edmund Short, George D. Marconnit, ed, pp.37~42.

니, 어찌 우리를 속이시겠느냐?¹³⁾

여기서 율곡은 퇴계와 같이 천인합일의 가정 위에서 교육의 목적을 인간이 천명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지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본성은 인간의 기질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인간 공통의 선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본목적은 포기하거나 소홀히 할 때 교육의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교육이 기능적인 도구로 전락하여 과거시험을 위한 도구가 될 때 교육은 그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율곡은 교육을 통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굳은 입지가 서 있지 않다면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가 학문을 통한 인격의 완성이나 정치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영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학문이 쇠퇴하고, 과거를 위한 虛文이나 文의 암기가 교육의 전부가 되어 버렸다고 개탄하고 있다.¹⁴⁾

다시 말하면 율곡은 교육에서는 그 목적하는 바의 입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 목적은 모든 인간을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천인합일의 논리에서 꼭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지만, 달성가능한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이 인간의 완성 이외에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써 의미가 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성인의 경지로 합일 시키는데 있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인간의 氣質之性에 합일시키는데 있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퇴·율은 천인합일의 논리 위에서 교육의 목적이 성인을 양성함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성인이란 천명인 元·亨·利·貞을 몸에 갖춘 사람이다. 범인도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노력하면 성인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人을 天과 합일되게 하는 것

13) 栗谷, 「擊蒙要訣」, 김성원 역(서울, 명문당, 1986), p.15.

14) 栗谷, “雜著, 文策”, 「栗谷全書 IV」, pp.452~57.

이다. 그것은 인간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본연지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을 지향하는 교육이란 천도에 합일되는 것이지만 인도에 합일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본연지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요구나 개인의 기질지성에 영합하는 것이 될 수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교육 방법론

退·栗의 교육방법의 특성을 한 마디로 말하면 통합성에 있다. 즉 인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 居敬·窮理·力行的 삼자가 통합되어야 하고, (2) 자연계와 인문계를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퇴·율의 인간교육의 목표가 인간의 氣의 요구나 사회적 요구가 아닌 천명에 합일하는 인간의 본연지성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법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기계의 논리인 means-ends식의 접근방법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방법이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소모품이 아닌 통합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기계적인 논리에 의해서 설정된 means-ends식 교육방법의 결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학교의 교과 내용이 교과 상호간에 연관성이 없고, 교과와 인간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인간에게 새로운 안목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잡다한 지식의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과 교과와 인간의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편적인 지식의 축적만으로는 인간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교과와 인간과의 관련성이 희박한 이유는 means-ends식 기계적 교육 방법에 의해서 인간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행위 등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계의 논리가 우선 분석이나 조정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성이나 감성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나 개인적 요구에 의해

서 분열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지성과 감정 그리고 행위의 통합을 통한 주체적인 인간 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退·栗은 교육은 居敬·窮理·力行이 함께 수행되는 통합적 과정이라고 본다. 우선 퇴계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持敬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持敬을 통해서 본연지성을 회복해야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敬은 생각과 실천을 겸하는 것이며, 움직이고 고요함을 관통하는 것이며, 안과 밖을 합하는 것이며, 드러나고 은미한 것을 하나로 하는 원리입니다”¹⁵⁾라고 하여, 경을 통하여 인간은 천리에 합하고 진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퇴계는 知行并進을 교육방법으로 중시하고 있다. 知行并進을 강조하는 이유는 학문이나 지식이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이치는 일용 생활 속의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실제적이며 명백하게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버리고 성급히 高遠深大한 것을 일삼아 지름길에서 재빨리 얻으려 하지만 이는 자공도 하지 못한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일상 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는 퇴계의 천인합일 사상에서 연원되는 것이다. 즉 지식의 본체인 천도는 일상 생활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상 생활속에 내재해 있는 천도를 어떤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 천도는 일상의 생활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상의 행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퇴·율은 知行并進을 학문의 방법으로서 강조하게 된다. 율곡은 독서하는 방법으로서 1) 專心致志, 2) 精思涵泳, 3) 求踐履之方の 세가지 조건을 예시하고 있다. 율곡은 특히 독서가 사실을 암기하는 명목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독서를 통해서

15) 李滉, <聖學十圖>, 『退溪選集』, 윤사순 역, p.320.

얻은 지식이 실천에 옮겨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와 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이 知나 行의 관계가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즉 知와 行의 관계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知를 통해서 行에 도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行을 통해서 知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우선 知에서 行으로 가는 과정을 분석하면, ‘知止-定-靜-安-慮-能得’의 여섯 단계가 있는데, 이 여섯 단계는 서로 멀리 떨어진 독립적인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 진행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行을 통해서 知에 도달하는 경우는 천인합일의 가설위에서 이미 우리 몸에 천명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본연지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천도에 합치되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¹⁶⁾

이제까지 우리는 퇴·율의 인간교육적 논리는 우선 교과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과가 사회적 기능의 수행이나 개인의 기질지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연지성을 위한 것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학습의 전제조건으로 持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육이 제거되어야 천도에 합치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知行이 並進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천도는 일상의 행위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독서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사리를 터득해야 하며, 또한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理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 봄으로써 行을 통해서 知를 터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교육의 논리는, 교육이 1) 거경, 2) 궁리, 3) 역행의 삼자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퇴·栗의 인간교육의 논리는 ‘豁然貫通’의 원리다. 그것은 자

16) 栗谷, <聖學輯要>, 『栗谷全書 V』, pp.176~78.

연과학과 인문과학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교육의 문제를 ‘지식의 폭발’에 의한 ‘전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교과의 세분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시 이 교과의 세분화는 교육에서 인간을 소외시키게 되었다. 교과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서 통합이 어렵게 되고, 결국 인간을 위한 지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退·粟은 천인합일의 가정 위에서 우주의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의 원리로 꿰뚫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즉 율곡이 말하는 理一萬殊의 원리다. 천·지·인의 삼자를 통하는 하나의 理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원초적 개념은 태극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율곡은 젊어서 <浴沂辭>라는 시를 통하여 삼라만상을 통하는 하나의 리를 얻고자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나의 옷 떨쳐 입고, 나의 갓 털어 쓰고서, 舞雩에서 바람쐬고, 만물의 변화 관찰한 다음 노래하며 돌아오리라. 한 이치의 근본 깨닫고 만 갈래로 분산되는 만물의 실정 통하였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보니 물고기는 뛰놀고 소리개는 나는구나.¹⁷⁾

또한 율곡은 理와 氣를 하나이면서 둘이고(一而二), 둘이면서 하나라는(二而一) 상관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즉 삼라만상의 존재는 구체적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理·氣·數를 설명하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理는 氣에 붙어 있는 것이요, 氣는 理에서 나온 것이요, 數는 理에서 나온 것이요, 數는 氣에 인연한 것이니, 이른바 氣라는 것은 理의 氣요, 이른바 數라는 것은 氣의 數라는 것입니다.”¹⁸⁾ 라고 하여 理·氣·數가 서로 상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음양·복서·점상·의방 등의 잡술이나 末技를 위

17) 栗谷, <浴沂辭>, 『栗谷全書 I』, p.45.

18) 栗谷, <壽夭策>, 『율곡전서 IV』, p.408.

에서와 같은 상관관계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道는 하나일 뿐이다. 百家의 말이 여기서 생기고 衆技의 무리도 여기서 나옵니다. 저 음양이나 복서나 점상이나 의약이나 그 어느것 치고 도가운데 한가지 아닌것이 없습니다. 군자의 학문은 理를 밝히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니 理만 밝혀진다면 내 마음의 아는 것도 미진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 술수 같은 小技야 사물을 궁구하는 한 가지 일일 뿐입니다.¹⁹⁾

라고 하여 기술은 理와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퇴·율의 인간교육의 논리가 결국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통합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즉 ‘천인합일’ 또는 ‘이일만수’의 원리에 의하여 모든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원리는 統體一太極이라는 것이다. 그 理를 알게 되면 자연계나 인간계나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리를 터득한 상태가 바로 활연관통 또는 일이관지의 경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퇴·율은 천인합일의 논리위에서 천·지·인의 모든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理는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이 하나의 理를 관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학습보다는 ‘大原을 通見’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원을 통견하게 되면 理·氣·數의 모든 원리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의학·점술등의 小技도 저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퇴·율은 末보다는 本을 가르치는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교과를 세분하기 보다는 교과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이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퇴·율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즉 퇴·율의 교육방법은 근원적으로 천인합일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왔다. 따라서 퇴·율은 교과가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인간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볼 수도 없고, 인간을

19) 栗谷, <監藥策>, 『栗谷全書 IV』, p.423.

기질지성의 요구에 합치되는 존재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본연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경·궁리·역행의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의 심·지·행이 모두 활용되게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퇴·율은 교과와 교과간의 분화를 경계한다. 교과와 교과간의 세분화는 인간이 학습한 지식을 인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배운 지식을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의 원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리는 태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태극의 원리를 알면 모든 삼라만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IV. 결 론

한국 사회는 개화기 이후 약 100년간의 서양 문명의 도입, 그리고 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성의 회복이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교육계의 과제는 인간교육이 되었다. 교육을 통하여 무너진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교육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단순히 도덕 교과를 몇 과목 교육과정 에 끼워넣거나 교과서 개편을 통하여서는 인간성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만 인간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서양화 또는 산업화 되었다. 즉 기계문명의 패러다임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계의 논리란 모든 사물을 means-end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특징지워 말할 수 있다. 교육학의 패러다임도 이러한 means-end식의 기계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학에서도 인간의 논리보다는 기계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되었다. 즉 어떻게 하면 학습의 능률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교육학의 중요 과제였다는 말이다. 이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은 구체화·세분화 과정을 밟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교육은 인간과 멀어지게 되었다. 또한 구체화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S-R식의 훈련이 최선의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의 본질과는 떨어진 기계적인 훈련의 과정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교육학은 기계의 논리를 탈피하여야 하겠다는 말이다. 기계적인 논리 대신에 인간적인 논리를 응용하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인간적인 논리를 우리의 전통 사상인 성리학에서 찾아보려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 성리학의 대종을 이루었던 퇴·율의 사상을 살펴보려 한다. 퇴·율의 사상을 그들의 인간관과 교육관으로 나누고, 다시 교육관을 목적론과 방법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는 퇴·율의 사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교육관으로서 기계의 논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퇴·율의 인간교육의 논리는 그들의 인간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다. 퇴·율의 인간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천인합일 사상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천명지성을 심성에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상은 가장 순전한 상태인 천도에 합일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본연지성을 회복하여 천인합일의 상태로 도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교육의 이상이기도 한 것이다. 천명에 합일된 상태인 성인의 경지에 모든 사람이 도달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는 말이다.

또 하나 퇴·율의 인간관의 특성은 상대성 또는 상관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천명은 발하게 되면 有善惡의 가변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천의 본원인 태극이 발하게 되면 음양·이기·성정 등으로 妙습의 상태를 이루게 되므로 태극의 體가 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율곡은 計較商量하는 意를 강조하게 되고, 퇴계는 敬을 강조하게 된다. 즉 인간이 본연지성인 순선의 경지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율의지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퇴·울의 인간관이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날때부터 천명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논리다. 즉 인간에게는 순천의 본연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외부의 조정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Behaviorist들의 논리와는 가설부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울은 인간의 자율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중심의 사상을 확인시켜준다. 인간의 자율의 사에 의하여 모든 일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물이 환경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결정론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우선 퇴·울은 교육 목적론에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군자의 양성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인간의 기질지성에 여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근본목적은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돕거나, 아동의 흥미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본연지성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교육의 근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성 회복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인간교육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번째로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통합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과와 인간이 통합되어야 하며, 교과와 교과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교과와 인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학습의 과정인 지·정·의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퇴·울은 학습의 과정으로 거경·궁리·역행을 들고 있다. 거경·궁리·역행은 서로 독립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과와 교과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활연관통의 묘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은 하나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삼라만상은 萬殊의 상태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원래 理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서는 理와 氣가 분리될 수 없고, 양과 음이 분리될 수 없으며, 理와 氣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그리고 기술과 문학이 모두 하나의 理로 설명될 수 있다는 통합의 원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退·粟은 인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인간을 위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지·정·의가 통합되는 교육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퇴·율이 생각하는 교육이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인 수단이 아닌, 방법이 교육자체인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기계의 논리를 극복하고 인간교육의 논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은 취업을 위한 도구이거나 아동의 취미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본연지성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목적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의 설계에 있어서도 교과와 인간, 그리고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은 지·정·의가 통합된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과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기술을 통합하는 원리가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강조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명제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가운데서의 인간교육은 구호에 그치고 말게 될 것이다.